

‘양의 침묵’ 오늘 끝날까



양현종

KIA 타이거즈가 기다렸던 FA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D데이가 찾아왔다. KIA는 22일 양현종 측과의 FA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마련한다.
지난 14일 협상에서 KIA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 연속 하락세, 내년이면 35세의 투수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옵션에 무게를 둔 100억대 계약을 제시했지만 ‘보장액’에서 의견이 갈렸다.
협상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양현종 측이 공개적으로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괜한 논란이 불거졌다. 장타력이라는 가장 큰 고민을 풀기 위해 KIA가 공격적으로 영입에 나선 외부 FA 나성범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팬심이 동요했다.
분수령으로 예상됐던 주말에도 답을 내지 못하

KIA, 양현종 측과 FA 협상 테이블 다시 마련 100억대 계약 ‘보장액’ 이전 ... 이제는 답해야

면서 결국 22일 다시 만남을 약속했다.
사장·단장·감독까지 핵심 3인방을 모두 교체하면서 명가재건을 위한 ‘변화’를 예고한 KIA는 충분히 상징성에 대한 예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현종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2016년과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두 차례 FA 협상에서 해외 진출을 강조하며 스스로 ‘선택’을 했던 양현종은 또 다른 선택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선택의 폭은 좁다. 지난 1월과 비교해도 양현종의 입지는 많이 달라졌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양현종 측은 해외 진출이라는 변수에 ‘조건’을 정해놓고 KIA와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는 제시했던 조건을 깨고 뒤늦게 꿈과 도전을 위한 선택을 했다.
스플릿 계약까지 불사하고 미국으로 떠났지만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양현종의 도전은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마이너리그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년이 흘러가면서 두 번째 FA를 맞은 양현종의 시장 가치는 하락했다.
지난 겨울 양현종 측이 노크를 했던 한 구단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당시에는 보상금까지 계산하면서 즐거운 고민을 했지만, 2년 연속 기록된 수치 탓에 현실로 추가 기울면서 외부 시장 분위기도 급변했다.
속속 대어들의 행선지가 결정되면서 소강상태를 맞은 FA시장, 양현종의 선택이 이번 스토브리그 최대 관심사가 됐다.
양현종이 결론을 내고 현재 광주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최준영 대표이사와의 만남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내년 시즌 준비 길은 먼데 발걸음 더디고

2년만에 K리그2로 강등
구체적 계획 아직 못 세워
차기 감독 금호고 최수용 물망
사령탑 선임돼야 본격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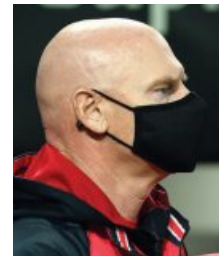
갈 길은 바쁜데 광주FC의 발걸음이 더디다.
광주는 올 시즌 K리그1 최하위인 12위를 기록하면서 K리그2에서 ‘도전의 시즌’을 보내게 됐다.
2년 만에 강등의 아픔을 맛봤지만, 내년 시즌 전망은 나쁘지 않다. 올 시즌 제주전 몰수패 등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경쟁한 K리그1 팀들을 긴장시키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내년 시즌 승격의 문도 넓어진다.
K리그2 1위를 기록한 팀은 기준처럼 ‘우승팀’ 자격으로 다이렉트 승격을 하게 된다.
여기에 승강플레이오프를 통한 승격 카드가 1장에서 2장으로 늘어난다.
K리그2 2위팀은 K리그1 11위 팀과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른다. 그리고 기준처럼 K리그2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승자는 K리그1 10위 팀과 승강플레이오프를 펼치게 된다.
최대 3개 팀이 승격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면서 광주는 K리그1 복귀를 목표로 내년 시즌을 달리게 된다.
강등의 아쉬움을 달래고, 내년 시즌을 위해 시동을 걸어야 하는 등 갈 길이 바쁜데 아직 광주는 구체적인 시즌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사령탑이 부재중이기 때문이다.
광주는 올 시즌이 끝난 뒤 강등의 책임을 물어

김호영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김호영 감독과의 계약을 종료한 광주는 새 사령탑으로 최수용 금호고 감독을 물망에 올려두고 있다.
‘스타 감독’을 영입하기에는 예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인 구단의 한계가 한 이유이고, 누구보다 광주의 면면을 잘 아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수용 감독이 우선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차기 감독이 선임돼야 광주의 본격적인 시즌 준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새 감독의 색채에 맞는 코치진과 선수단 구성 작업 그리고 구체적인 훈련 일정과 시즌 준비를 위한 청사진이 그려지게 된다.
무엇보다 내년 시즌 일정이 빠듯한 만큼 감독 선임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2022년은 ‘월드컵의 해’이다. 카타르에서 11월 21일부터 지구촌의 대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이에 맞춰 리그 일정이 앞당겨질 예정이다.
올 시즌은 11월 7일과 12월 5일에 각각 K리그2와 K리그1 정규리그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어 12월 12일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을 통해 내년 시즌 K리그1·2팀 구성이 완료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월드컵 시작에 앞서 리그 일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만큼 개막도 빨라질 전망이다.
2월 중순 리그 개막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손발을 맞출 시간이 빠듯하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사령탑 교체에 따라 팀워크를 새로 맞춰야 하는 등 준비할 것은 더 많아졌다.
광주가 강등의 충격을 털어내고 승격 목표를 위해 빠르게 팀을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을 맞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트로피 높이 들고... 20일(현지 시각) 멕시코 여자축구 리그 '리가 MX 페메날'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몬테레이 아타스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윌리엄스 KIA 전 감독 김하성과 한 팀서 뛰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코치 선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옛 윌리엄스(사진) 전 감독이 내년 시즌 김하성과 한 팀서 뛰다.
미국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보브 멜빈 신임 감독은 21일 윌리엄스 전 워싱턴 내셔널스 감독과 브라이언 프라이스 전 신시내티 레즈 감독 등을 코치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378승리를 날리며 5차례나 올스타로 뽑혔던 윌리엄스는 2014~2015시즌 워싱턴 감독을 맡은 바 있다.
2020~2021시즌에는 KIA 감독을 지냈으나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해 팀을 떠났다.
KIA 감독 직전인 2018~2019시즌에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3루 코치를 맡아 당시 멜빈 감독과 함께 한 적이 있다.
윌리엄스는 샌디에이고에서 3루 코치를 맡게 된다.
KBO리그를 경험한 윌리엄스가 샌디에이고에 합류함에 따라 올해 고전한 내야수 김하성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하성은 지난 1월 샌디에이고와 4년 계약을 맺었으나 올 시즌 타율 0.202, 8홈런, 34타점, 6도루에 그치며 기대에 못 미쳤다.
이날 샌디에이고는 윌리엄스와 함께 영입한 프라이스 전 감독에게 코칭스태프 수석 자문을 맡길 예정이다.
또 샌디에이고는 투수 코치로 최근 계약한 루벤 니에블라를 임명했다.
타격코치에는 27살에 불과한 마이클 브르더를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
브르더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타격 코디네이터를 맡았다.
/연합뉴스

테니스 스타 나달 코로나19에 감염



나달

남자 테니스 스타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새 시즌 준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영국 BBC는 21일 나달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무바달라 챔피언십에 참가한 뒤 스페인에 귀국하자마자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나달은 트위터를 통해 "(대회 중) 이틀에 한 번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마지막 토요일(18일)까지 음성 반응을 확인했다"면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불쾌한 느낌이 있었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나와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알리고 있다"고 적었다.
나달은 또 "앞으로 일정은 완전히 유동적이다. 상황을 보고 선택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혔다.
나달은 올 시즌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다. 헬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 등으로 메이저 대회에 2차례만 출전했고, 시즌 막판에는 발 부상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번 무바달라 챔피언십은 나달의 부상 복귀전이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가 아닌 무바달라 챔피언십은 선수들이 새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출전하는 '워밍업 대회'다.
여기서 남자 단식 4강에 오르며 몸 상태 점검을 마쳤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훈련을 쉬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나달은 1월 17일 시작하는 새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 출전한다.
/연합뉴스